

# 202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 업무보고

## “문학분야” 현장예술인 의견에 대한 답변

'23. 3. 22.(화)/문학지원부

지난 3월 7일(화)에 개최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 업무보고(문학 분야)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현장과 온라인 채널을 통해 주신 소중한 제안과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 전문가 패널

#### ○ 공적 지원의 다양성 고려 및 행정 간소화 필요

- (수용) 보다 다양한 문예지 발간지원을 통하여 공적 지원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예지발간지원사업의 유형을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경쟁에서 유리한 대형 출판사와 지역 및 단체 기관지의 경쟁 구도가 아닌, 다양한 문예지가 공존할 수 있도록 문예지발간지원사업의 모니터링 및 다양한 전문가의 자문회의를 통하여 보다 적합한 사업유형을 발굴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현재는 보조금을 원고료로만 집행이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는 점을 개선하고, 미래문학의 발전을 위해 육성이 필요한 영역까지 지원범위를 넓히기 위해 2024년에는 문예지 지원 예산 증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중이오니 현장의 많은 협조와 도움 부탁드립니다.
- (불가) 공공재원인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정산 및 기타 필수 증빙 등의 행정절차는 보조금 법률에 의거한 필수 이행사항으로 전적인 면제는 불가합니다. 다만, e나라도움 이용의 어려움 및 정산 증빙자료 구비 등의 행정적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하는 바, 사무처에서 보다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안내 및 상시 소통 강화를 통하여 행정적 절차 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문학 분야 발표·향유·아카이빙을 위한 플랫폼 구축 필요**

- (수용) 문학광장 누리집 재구축을 통해 발표 및 향유에서 작가와 독자들을 위한 혁신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부터 해당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2023년 5월 새로 개편된 누리집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 \* 문장웹진×아르코문학창작기금 연계 창작발표 기회 확대(2023년 300명 예정)
- \* 작가 메타정보 개선 및 팔로우 기능, 열람 편의 기능(책갈피, 형광펜, 한줄 메모, 팔로우, 큐레이션 등) 구현 등 이용자 편의기능 대폭 개선
- 아울러 문학광장 누리집 재구축(5월 개통) 시 작가 정보 및 문예지 아카이브 기능 또한 개선 및 서비스 제공 예정입니다. 영문 등 외국어 번역 서비스는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운영하는 '한국문학 해외진출 활성화 플랫폼(<https://klwave.or.kr>)' 등과 협의하여 적절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작가 개인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확대 필요**

- (기 진행, 중장기) 작가 개인을 지원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업인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의 경우, 예술현장 의견수렴 및 다년간 증액 노력을 통해 2022년 사업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8억원이었던 예산을 '22년 12억원으로 증액하고, 수혜인원을 기존 80명에서 '22년 28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총 수혜인원을 360명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작가의 작품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또한, 문학지원부에서는 단체지원사업을 통해서도 작가 개인에 대한 지원을 실행 중입니다. 문예지발간지원사업의 경우, 지원되는 보조금은 100% 원고료로만 집행될 수 있으며, 문학집필공간운영지원사업을 통해 작가가 집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숙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의 신청대상이 개인이 아니더라도, 단체 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작가 개인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공정보상 체계 및 안정적 집필환경을 제공하고자 노

력하고 있으니, 단체지원사업에 선정된 각 단체의 홈페이지 및 안내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더불어, 예술위는 출퇴근 가능한 집필실을 제공하는 '작가 집필실이용지원' 등 개인 작가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방식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안주신 내용을 반영하여, 24년도 예산 신청 시 관계부처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예술현장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학 분야 기획자 지원 및 문학극장 필요

- (수용) 문학 분야 기획자의 다양한 활동 및 문학극장 지원 프로그램 제안은 문학 저변을 활성화하고, 작가와 독자 간의 다양한 만남을 제안하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제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 관련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한 신규 프로그램 추진계획을 2023년 중에 마련할 예정이며, 기재부·문체부 협의를 통해 2024년도 신규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어린이문학주간 지속, 아동문예지 지원 확대 및 그림책 분야에 대한 지원 필요

- (수용) 제기하신 '어린이문학주간'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현재 2024년 신규 예산편성을 요청한 상태로, 향후 정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많은 지원과 도움 바랍니다.
- (기 진행) 어린이·청소년문예지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대다수의 많은 어린이문학잡지가 실제 독자인 어린이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려면 현재와 같은 제한된 규모와 방식의 지원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문예잡지가 단지 해당분야 작가들의 작품 발표의 기능에 국한되지 않고 독자들인 어린이가 직접 주체가 되

어 만들고 향유하는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확대방안을 마련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문예지의 경우는 수요 면에서도 매우 취약한 실정인데 육성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2024년 신규 예산편성을 요청한 상태이오니,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기 진행) 또한 그림책 관련하여, 이미 발간된 도서에 한해 문학 분야(아동문학) 도서로 분류하고 선정된 우수도서를 구입·배포하는 사업(문학나눔도서보급)을 이미 시행 중이며, 5개년간 총 281종의 그림책 도서를 선정·보급했습니다.

\* 최근 5개년간 그림책 선정보급 규모

| 구분       |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계     |
|----------|-----|------|------|------|------|------|-------|
| 선정<br>종수 | 전체  | 500  | 500  | 550  | 500  | 520  | 2,570 |
|          | 그림책 | 49   | 53   | 66   | 55   | 58   | 281   |
| 비율(%)    |     | 9.8  | 10.6 | 12.0 | 11.0 | 11.1 | 10.9  |

- 또한 2021년부터는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예술활동 지원사업(現공연지원부 소관)’을 마련하여 이 사업을 통해 그림책 분야의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림책의 창작과정에 보다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 2023년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예술활동지원사업’ 운영 개요

|              |  |
|--------------|--|
| 사업내용         | 작품의 향유 대상이 영유아·어린이·청소년을 주요 관객(독자)로 하는 예술 창작물 발굴 및 지원 ※ 그림책 발간지원(1천만원~3천만원) |
| 신청분야         | 복합장르 ※ 2023년부터 ‘문학’분야 아닌 복합장르 신청 가능  |
| 지원규모<br>(예산) | 전체 선정사업 60건(결정액 1,320백만원) 중 문학(그림책 등 포함)분야 15건 선정(25%), 지원결정액 187백만원(14%)  |

## □ 현장 참관자

○ 문학 분야 공정보상 현실화 필요 : 기획료, 원고료 등

- (기 진행, 중장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보조금 편성에 있어 유연성을 확대하고자 보조금 내 인건비, 신청자 본인 사례비(역할이 명확할 경우), 기획 사례

비 등의 편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예술 창작 분야의 공정한 보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문예지발간지원사업의 선정단체 원고료 집행내역을 기준으로 2021년도부터 매년 '원고료 평균 지급단가' 가이드라인을 배포 및 안내하고 있습니다(<https://www.arko.or.kr> 누리집 내 "2023년 원고료 평균 지급단가 기준 가이드라인" 참조). 문학 각 장르별 평균지급단가 고시를 통하여, 매년 일정 정도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문예지발간지원사업 단체에게도 본 평균 지급단가 준수 권고 및 모니터링을 통해 평균 지급단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다 공정한 문학 생태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원고료 평균 지급단가 고시 및 문예지 단체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 아동문학 작품 해외진출 시 수출과정에 대한 지원 필요

- (기 진행) 아동문학을 포함한 한국 문학 도서의 해외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한국문학번역원의 "해외교류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는 한국문학 세계화와 관련된 국내·외 온·오프라인 행사 및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3년에 해외교류 공모사업 접수는 4월(2회차), 7월(3회차), 10월(4회차)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밖에도 '전략지역 맞춤형 번역출판사업'이나 '국내 출판사/에이전시 완역지원사업' 등의 사업도 추진되고 있으니 관련된 세부내용은 한국문학번역원 홈페이지([www.ltikorea.or.kr](http://www.ltikorea.or.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도 '초록·샘플 번역지원', '포트폴리오 제작지원' 등 출판수출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기관 홈페이지([www.kpipa.or.kr](http://www.kpipa.or.kr))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미 진행되는 여타의 사업들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문학 작가 학교파견사업 제안

- (중장기) 제안하신 내용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제안내용과 연관된 사업(학교예술강사 파견지원사업)을 이미 추진 중입니다만, 문학분야는 참여에 제한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 따라서 정부에서는 해당 내용이 보완·반영된 2차 기본계획(2023~2027)을 준비하여 발표할 예정이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 (수용) 또한, 예술위원회 사업 중에서는 문학나눔도서보급사업, 도서관상주작가 지원사업 등에서 제안하신 아이디어를 구현할 방안이 제시될 수 있겠습니다.
- 문학나눔사업의 경우, 선정도서를 보급하는 어린이·청소년 관련 시설을 전년보다 더욱 확대하고, 이 보급처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시범 보급하여 발전의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도서보급 대상 어린이·청소년 관련 시설 현황(2022년 기준)

| 구분  | 어린이·청소년<br>도서관 | 지역아동센터 | 기타<br>아동복지시설 | 계   |
|-----|----------------|--------|--------------|-----|
| 개소수 | 55             | 163    | 56           | 274 |

- 또한 도서관상주작가의 경우, 작가를 파견하는 도서관 가운데 현재 학교도서관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의 확대 적용 가능성 여부에 대해 올해는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안을 마련하고 차년도에는 실제 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 물론, 현재 정해진 규모 외에 학교도서관 등 사업대상을 확대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더욱이 이 사업들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사업으로 부처협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수혜작품 독자 공유 확대 필요(온라인)

- (기 진행) 예술위에서는 내·외부 협력 플랫폼을 통해 아르코문학창작기금(발표지원) 사업 수혜작품의 온라인 발표를 지원하고 있

으며, 2023년도에는 발표지면 연계뿐 아니라 작품에 대한 기획 홍보 등 선정 작품 후속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말씀 해주신 내용을 반영하여, 작품과 독자의 접점을 확대하고 더 많은 독자가 우수한 문학작품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22년 문장웹진 100명, 카카오브런치 50명 작품 발표완료(지속 발표예정)

○ 도서관상주작가 사업 및 운영체계 개선 필요 : 지원대상 확대, 복무환경 개선 등

- (중장기)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2022년 예산이 크게 줄었지만 예술위에서는 사업운영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한정적인 예산 안에서 2021년 최대 지원 도서관 수인 45개 도서관 수와 비슷한 규모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술위에서는 2024년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의 긴밀한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상주작가 집필공간 제공 : 도서관별 협의사항 안내)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공모 지원 시 도서관에서 상주작가 집필공간에 대한 정보를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 상주작가 집필 공간 및 작가 공개채용 등은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고유사항이므로 이 점을 참고하시어 상주작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상주작가 환경개선) 예술위는 매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현장 모니터링과 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상주작가의 경직된 근무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2023년 사업에서는 상주작가가 운영하는 문학 프로그램 횟수를 5회(상시, 단기 전체 포함)로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주 40시간 근무 중 하루의 재택근무를 병행하도록 상주작가 근무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상주작가 집필 환경이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개선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비평 분야에 창작 아카데미 프로그램 등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 제도 필요

- (기 진행) 비평 분야에서는 2022년 “창작의 과정#문학” 사업을 개편하여, 다양한 문학 비평활동인 워크숍, 리서치 트립,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사업이 더 많은 비평가들의 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문학 현장에 홍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아울러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는 작품 창작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시·소설 분야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추후 지원 대상을 문학 분야 기획자는 물론 비평을 포함하여 확장해나갈 계획이라는 점도 안내 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 행정현장에서 일하는 문학 전문인력 발굴·양성 필요

- (기 진행) 지적해주신 예술현장의 행정 및 전문인력 부족의 어려움에 대해, 특히 문예지발간사업 등을 통해 살펴볼 때, 민간 출판사보다 유관 협·단체 및 동인 형태의 발간 주체의 인력 운영상의 취약점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 예술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현장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문화예술연수단원 지원사업’ (예술분야 인턴십 지원사업)을 문학분야까지 확대하여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 문화예술연수단원 지원사업 현황(2023년)

| 사업명                     | 사업목적   | 지원대상(분야)   | 채용직무분야     |  |
|-------------------------|--|--|------------|--|
|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br>(인턴십지원) | 민간 및 국·공립 문화예술단체의 연수단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분야 전공 졸업자들의 문화예술계 현장 진입 여건 개선 | 만 34세 이하(198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문화예술 전공 졸업자를 연수단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민간예술단체 및 국공립단체(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분야) | 창작 및 실연 분야 | 실연자(연주자, 성악가, 무용수, 배우 등), 제작기획(연출자, 의상 및 무대 제작 등), 큐레이터, 에듀케이터 등, 출판제작(출판기획, 교정, 교열, 번역 등) |
|                         | 문화예술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실업난 해소 기여 및 연수단원 정규직 전환 촉진                        |  | 경영 분야      | 기획·홍보·마케팅(펀드레이징, 티켓관리, 후원회 관리 등), 경영 일반(총무, 세무, 회계, 인사, 조직관리 등)                            |

- 또한, 문학 현장의 기획 전문인력 발굴 및 양성을 위하여, 문화예술 교육 통합 플랫폼 '문화예술, 내 일'(https://hrd.arko.or.kr)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강의분야 : 문화예술경영, 문화예술기획, 문화예술행정 등

- 문학 분야 다양성을 고려하여, 소설가의 방 프로그램 장르 확대 필요
  - (수용) 소설가의 방은 서울 명동에 위치한 '서울프린스호텔'의 100% 전액 기부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호텔 측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브랜딩 된 기획사업입니다. 소설 이외 장르 작가님들의 아쉬움을 해소해드리고자, 예술위 문화예술후원센터에서 추가적인 후원 기업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준비될 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문학나눔도서보급 사업 내 그림책 분야 지원 및 비중확대 필요
  - (기 진행) 현재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은 시, 소설, 수필, 아동청소년, 평론/희곡 5개 분야로 도서 신청 및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림책은 아동청소년 분야에 속해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아동청소년 분야에서 그림책이 분리되어 별도 분야로 신설되기 위해서는 그림책의 수용범위가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문학 현장에서 단일 분야로서 인정받아야 되는 선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출판시장에서 그림책의 발간부수가 늘어나고 있고, 해외에서도 한국 그림책에 대한 높은 평가를 고려하면 향후 그림책이 문학 분야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의 도서의 신청과 선정 분야는 문학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한 부분임을 알려드리며, 문학 분야의 균형적이고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 문학 수요에 따른 유연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